설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…유통업계 예약판매 돌입

광주신세계·롯데 광주점·이마트 등 한우·굴비·청과 등 최대 70% 할인 남도지역 대표 선물세트도 대폭 확대 김영란법 개정 5만~10만원 선물 증가

설 명절을 앞두고 저렴하게 명절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사전예약 판매 기간을 노리 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. 이에 따라 광주지 역 유통업계도 설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기간과 혜택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행사에 돌입한다.

우선 (주)광주신세계(총괄임원 최민도) 는 내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설 선물세 트 예약판매에 나선다. 인기품목인 굴비, 한우, 청과는 최대 30%, 와인, 건강식품은 최대 70%까지 할인한다.

지하 1층 식품매장 내에서 구매 가능하 며, 배, 사과, 곶감 등 농산 16품목, 한우 등 축산 30품목, 굴비, 갈치, 전복 등 수산 11 품목, 멸치, 김, 육포 등 조리식품 12품목 을 포함한 총 150여가지 품목이 준비돼 있

특히 농·수산 품목 대부분을 국내산으 로 구성하고, 10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

늘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. 이 기간 정상가 대비 최대 70%가량 저렴 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, 원하는 날짜와 장 소로 배송도 해준다.

상품별로 한우는 5~10%, 굴비는 20~ 25%, 청과는 10~20%, 곶감 및 건과는 20~30% 할인되며, 와인 및 건강식품은 10%~70%까지 할인된다.

대표상품의 가격과 할인율을 살펴보면 '한우 후레쉬 다복이'(33만2500원·5%), '순수 사과·배 세트'(10만5000원·19%), '수협 참굴비 다복이'(45만원·25%), '성산 포 은갈치'(13만5000원·10%) 등이다.

또 광주에 현지법인을 둔 지역기업으로 서 남도지역 대표 선물세트도 확대했다.

산지한우후레쉬 만복(장흥축협), 장성 사과세트 다복(장성 삼서농협), 나주 배세 트 다복(나주 남윤택 생산자), 전복 실속세 트(덕우도 양식장) 등 우수 로컬선물세트



(주)광주신세계 직원이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가는 청과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. 광주신세계를 포함한 광주지역 유통업계는 설 명 절을 앞두고 인기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예약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. 〈광주신세계 제공〉

물량을 전년대비 10% 이상 늘렸다.

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 26일부터 설 명절을 50여일 앞두고 내년 1월 21일까지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 상태다. 이 기간 총 120여 개 품목을 최대 70% 할인판매할

예정이다.

주요 상품군의 할인율은 축산 10~ 20%, 수산 10~20%, 가공식품·생필품 10~30%, 와인 40~70%, 건강상품 30~ 70% 등이다.

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이번 행사에서 10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 비중을 기존

47%에서 62%로 15% 더 늘렸다.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을 일

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농·축·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.

이밖에 백화점 측은 설 대목 특수를 선 점하기 위해 법인기업체 및 단체 주문 고 객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선물상담 T/F팀 도 구성하여 상담 활동에도 돌입할 계획이

광주지역 5개 이마트도 28일부터 내년 1 월 3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를 진행한다.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 매하면 최대 40%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,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행사도 펼친

이마트는 지난해 설 명절 처음 20%를 넘어선 사전예약 매출 비중이 올해는 25%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.

여기에 김영란법 개정으로 5만~10만 원대 신선 선물세트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물량을 지 난해보다 20% 늘리기로 했다.

대표상품으로는 제주도 특산물인 흑한 우로 만든 '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'를 20% 할인해 9만 9200원에 한정 판매하고, '덕우도 활전복 세트'도 10% 할인해 8만 8200원에 판매한다.

/박기웅기자 pboxer@kwangju.co.kr

aT, 영유아용 국수 2.3t 中 첫 수출 성공

민간사업 공모 방식 추진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·사장 여 인홍)는 27일 올해 민간 사업공모 방식으 로 추진한 '대중국 新비즈니스모델사업' 을 통해 최근 중국 영유아조제식품 국가 표준(GB)을 최초 통과한 국산 영유아용 국수 2.3t을 수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

중국에서 영유아조제식품은 비타민, 칼슘, 아연 등 영양소에 대한 성분기준이 나 라벨 표기 등 까다로운 국가표준(GB)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입 통관과 현 지 유통이 불가능해 그동안 영유아식품 기준에 맞춘 수출이 어려웠다.

매일 주식으로 면이나 빵을 먹는 중국 식문화 특성상 영유아용 면류는 이유식 제품으로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.

aT와 한국식품 전문 수입업체인 칭다 오해지촌식품유한공사는 중국시장에 수 입산 영유아용 국수제품이 없다는 점에 착안, 전북 익산에 소재한 면류 제조 중소 기업과 중국 수출용 영유아용 국수 개발 을 위한 협력을 진행해왔다.

이번에 첫 수출된 영유아용 국수제품 은 국산 시금치, 당근, 호박 등 4가지 맛 제품으로 주원료로 국산밀이 다량 사용, 국산 원료 수요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시험 수출된 제품이 현지 유통상에게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 입업체는 내년 1월초 본격적인 수출을 통 해 현지 영유아매장과 대형유통매장 등 으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 이다.

/박기웅기자 pboxer@kwangju.co.kr



한국산 영유아용 국수제품 홍보 전단지

연말 아마존 최고 인기상품은 '에코닷'

쇼핑시즌 가장 많이 팔려 배송업체는 반품 특수

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인 아마존 에서 연말 홀리데이 쇼핑시즌의 특수를 가 장 크게 누린 제품은 아마존의 소형 핸즈 프리 스피커 에코닷(Echo Dot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아마존은 26 일(현지시간) 공식발표를 통해 크리스마 스를 포함한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 아마 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에 코닷이라고 밝혔다.

아마존은 이 기간에 자사 제품인 에코닷 과 파이어TV(아마존 IPTV)의 판매가 급 증했다며 두 상품은 아마존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고 전했다.

특히 회사는 아마존의 인공지능(AI) 알 렉사가 탑재된 기기들은 이 기간 "수천만 개"가 팔렸다며 이중 에코스팟과 에코닷, 에코버튼은 매진됐다고 덧붙였다.

현재 흑백 버전 에코닷은 내년 1월 초까 지 배송이 불가능한 상태다. 아마존은 구 체적인 판매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.

회사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아마존 사

이트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 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

아마존은 "11월과 12월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사는 소비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 했다"면서 "지난 1주 동안 400만 명이 넘 는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무료 체험을 신 청하거나 돈을 내고 프라임 회원에 가입했 다"고 전했다.

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매달 소정의 액수 를 내면 2일 이내에 배송받고, 추가 비용 없이 온라인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.

반품물류에 특화한 업체인 옵토로(Op→ toro)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에 반품될 상품의 규모는 약 900억 달러(97조원)로

이는 1년 총 반품액수의 4분의 1에 해당 하는 것으로,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옵토로 는 전했다.

하지만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 고객 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반품하는 것을 선 호하면서 배송업체들은 사람들이 자주 찾 는 마트나 드러그스토어에 반품상품을 접 수할 수 있는 픽업 장소를 만들어놓고 이 러한 수요를 잡으려 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2019년 동물복지 인증농가 직불금 도입 … 축산 선진화 유도

살충제 계란 방지 종합대책

'살충제 계란사태'를 계기로 생산환경 을 선진화하고 살충제·농약 등 유해물질 을 먹거리에서 차단하는 범정부 종합대 책이 마련됐다.

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. 우선 밀집·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

에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이 시작된다.

산란계의 사육밀도를 마리당 0.05㎡에 서 0.075㎡로 올리고, 이를 내년부터 축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 용한다.

정부는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 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 30%를 지급 하기로 하고 내년에 260억원의 예산을 편 성했으며, 160개 농가가 대상이 될 것으 로 추정한다.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축산 선진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.

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, 가축방 역위생관리업 신설 등 방제기술을 전문 화하고 안전한 약제 유통, 매뉴얼 보급을 통해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. 특히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

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을 개정한다.

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 도록 2019년부터 세계에서 최초로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를 의무표기하고, 가정 용 식용란은 세척·선별·포장 과정을 거 쳐 위생적으로 유통하게 한다.

식약처는 지난 9월 산란일자 표기 의무 화를 입법예고하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 로 했으나, 양계업계의 반발로 내년에 규 정을 고치고 유예기간을 두는 등 2019년 시행으로 미뤘다. 2019년부터 계란·닭고 기 ·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 · 돼지고 기와 같이 생산·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. /연합뉴스



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"



를 필요한 소리만 **똑똑히 들립니다**.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. ☑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.

본 점) 서석동 남동성당옆 062) 227-9940 062) 227-9970

서울점 종로 5가역 1층

02) 765-9940

